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 장성군, '새싹삼' 소득작물 급부상

### 6년근 인삼보다 사포닌 함량 많아 신개념 웰빙삼채소로 '인기몰이'



장성군 재배농가들은 공동으로 출하회를 조직해 위생적인 시설에서 새싹삼을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공동 출하회가 산지에서 직접 공급해 신선하고 저렴한 게 특징이다. '웰빙'이 대세가 된 만큼 고급 삼채소인 새싹삼의 수요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인삼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어서 수출 전망도 낙관적인 편이다. 새싹삼은 귀농·귀촌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스마트폰으로 습도와 일사량을 조절하는 '스마트팜'에서 키워서 작업하기 까다롭지 않은 데다 연간 서너 번 재배가 가능해 자금 회전이 좋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농사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에 투자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유우석 장성군수는 "장성군 새싹삼 인삼 재배에 최적화된 특허받은 시설에서 인삼 맞춤형 토양으로 기르는 게 특징"이라면서 "새싹삼을 우리 군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 '사이클링 신안 2017' 대회 개최

오는 9월8일~10일까지 다이아몬드 제도 일원서

섬을 무대로 한 자전거 대회가 동호인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접수 10분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신안군은 올 9월 8일부터 9월 10일 까지 다이아몬드 제도 일원에서 '사이클링 신안 2017'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이 주최하고, 자전거생 활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 '섬을 달린다'는 주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두 개 이상의 섬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벤트이다.

비경쟁 대회로 치러지며 해안 일도, 방조제길, 노두길 등 다도해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를 설계해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회 1일차에는 비금·도초 일원 70km, 2일차에는 팔금~입태 추포~자은도 73km, 3일차에는 안좌도 53km를 달릴 예정이다.

숙박과 식사, 여객선 정원, 자전거 운송을 고려하여 150명 한도로 치러지며 참가비는 75,000원이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 스태프 인력 등을 배치하고 스포츠안전재단에 공제도 가입할 예정이다.

인종지에는 헛터 겸 물자 보급 장소로 활용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주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안=박응식 기자



## '차의 역사·문화·관광·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보성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용역보고회 개최

보성군은 차의 역사·문화·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집적화된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 용부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문가,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의 시간을 가

졌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56억 원을 포함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부서간 연석회의, 중앙지원단의 7차 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성을 봉산리 '꽃재' 일원에 티볼센터, 전망육교, 회전교차로, 자전거체험코스길, 빛경관 조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티볼(Tea Bowl)센터는 녹차 특화산업 플랫폼으로 녹차제품의 홍보, 판매, 체험을 위한 집적화된 융복합공간으로 녹차산업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대가 크다.

전망육교 및 회전교차로는 티볼센터 교류공간으로 꽃재, 한국차박물관, 대한다원, 해수욕장센터 등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로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빛축제장 테마강화를 위한 빛경관 조성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부 군수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차의 역사, 문화, 관광, 산업의 융복합 단지조성을 통해 녹차 관련 업체 및 농가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고흥군, 신청사 상량식 거행...안전 기원

고흥군은 7일 7만 군민의 염원을 담은 신청사가 마지막 골조를 상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상량식에는 박병중 고흥군수와 송우석 고흥군의회 부의장, 기관단체장,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건립공사의 안전을 기원했다.

행사는 길들이 공연 등의 식전행사에 이어 공식행사인 봉주취위, 분향강신, 초헌례, 이헌례, 종헌례, 상량식, 망요례 등의 순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봉헌했다.

박병중 군수는 상량 고유제에서 초헌관으로 나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고흥군민의 안녕과 발전이 영원히 함께 하는 자손만대의 터전이 되기를 기원했으며, 참석자의 대다수가 음복과 다과 회 후 공사 현장을 견학하면서 고흥군 신청사의 無하자·無장애·명품청사를 축원하였다.

박병중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고흥 발전을 위한 모든 행보를 이곳에 모아 다 함께 짚는 행복한 고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

로 신청사는 군민의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고흥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공공의 청사가 될 것"임을 밝혔다.

고흥군 신청사는 고흥읍 남계택지지구 공공청사 용지에 총사업비 474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부지면적 21,685㎡, 연면적 13,699㎡로 청사동 지하 1층, 지상 6층, 의회동 지상 3층 규모다.

2016년 7월 착공한 공사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마감공사를 준비 중이며 전체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실내외 마감공사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기간을 거쳐 최종 청사 이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 현 청사는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된 건물로 청사의 노후와 협소한 공간문제로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구도심내 공공기관의 집중으로 청사 주변 주차난과 교통 체증이 상시 발생하여 포화상태에 있다.

## 함평군,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성료

일문일답으로 농업인 애로사항 속 시원히 해결

함평군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9개 읍면 90곳에서 농업인 1578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좌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작별별 전문지도사 28명이 마을회관 등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불편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속 시원히 답변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됐다.

함평을 수호리 나용운 이장은 "농업발전과 농업인 지원에 힘쓰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어 힘이 난



다"며 "여름철마다 마을을 방문해 전해주는 교육이 큰 도움이 되고 있

다"고 밝혔다.

이항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과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